

시론



이정록

전남대 교수·前 대한지리학회 회장

안형주는 민선 8기 기초의회 의원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이 건넌 명함에는 '청년'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다.

몇 년 전 필자는 안 의원을 대학원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났다. 그는 어느 대학원생과 확연히 달랐다. 지역 문제를 놓고 토론할 때 자신의 주장이 분명했다.

그는 정치적 DNA 보유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것을 보면 화가 났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도

'청년' 정치인, 안형주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게

로를 건너거나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친구를 보면 가만있지 않고 혼내줬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 있으면

그는 대학시절 학생회 활동보다는 ROTC를 택했다. 정치를 하려던 리더십이 필요했고,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면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7년 정당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직장생활 도중 학생시절 가졌던 문제의식이 다시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터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정당 가입 후 서구를지구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다.

기초의회 의원 안형주 명함에 청년이 적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무슨 의도로 명함에 청년이란 단어를 써 넣었을까.

기초의회 의원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정치를 원하는 청년 신인들은 구의원이나 시의원부터 시작한다.

청년 정치인 안형주 의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지역구 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들의 요구와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청년 정치인 안형주는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불편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의원이 되길 바란다.

기고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 신성장산업 핵심전략지 양성 위한 다짐

광양만권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단지와 여수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원료 공급과 제품 생산이 용이하며

덕분에 철강, 화학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제조, 물류산업도 활발하게 이뤄져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80%이며 특히 울촌1산단, 해룡산단은 거의 분양이 완료됐다.

이들 액자 기업과 연계해 잠재 투자 기업들을 발굴하고 신규 유치

추진해 광양만권을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소재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다.

광양만권에 기능성화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유치하고

알루미늄, 니켈 등 신소재 생산 업체들과도 기업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양만권에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을 구축해 철강,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앙부처의 발전 계획과 연계해 신산업 거점화 기반을 강화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다.

여수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화양복합관광단지

충남에 의대 신설 지적한 전남도의회 성명서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지역 국립대인 공주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설과 부속대학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의 현실은 그동안 술하게 제기됐다.

광주은행 상반기 역대 최대 당기순익 났지만

광주은행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이 1천229억원 달성

광주은행 지주사인 JB금융은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증가한 3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천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30년 뒤엔 고령인구가 도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져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남 의대 신설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 및 권역의료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를 축소하려다 압박하고 있다.

최대 실적 났음에도 광주은행은 부담스럽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재원 분담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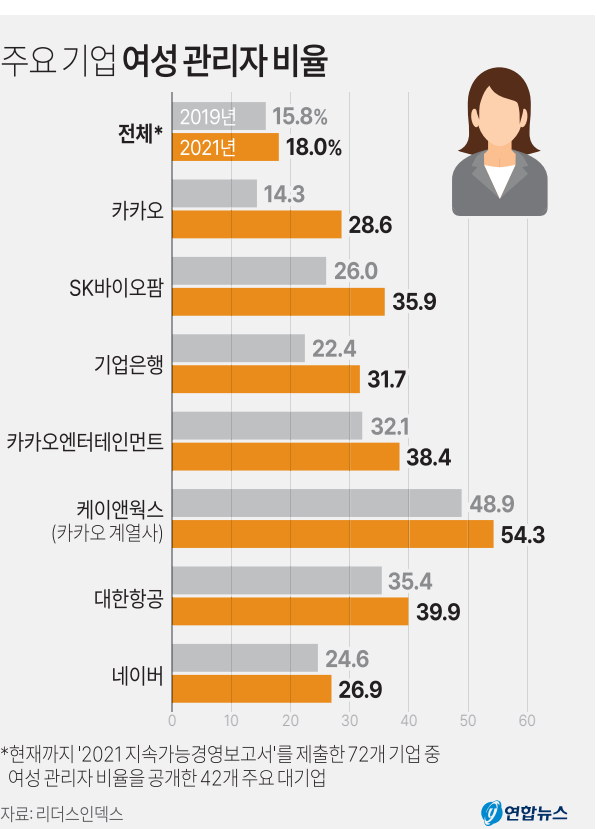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20% 미달...카카오 2년새 14%p ↑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여전히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텍스는 현재까지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한 72개 기업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을 공개한 42개 주요 대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카카오였다. 카카오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9년 14.3%에서 지난해 28.6%로 14.3%p 상승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건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편집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7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권,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투고

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는 지난 2012년 2월 처음 시행됐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간 유예기간을 줬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합쳐서 채 3만원이 안되는 돈으로 10년 동안 화재로부터 피해를 방지·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에 드는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담양소방서와 담양군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10년 주기로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필자가 바라는 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된다면 일반계층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면 한다.

'우리집은 아니겠지' 안일한 생각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생기길 바란다.

온열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여름나기

연이은 폭염주의보와 최고기온 3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고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령자나 아동 등 폭염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물을 자주마셔야 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시는 등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줘야 한다.

둘째, 외출 시 양산·모자를 쓰는 등 가급적 햇볕을 차단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하거나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등 최대한 시원하게 지내야 한다.

셋째, 가장 더운 낮 12시~17시에는 야외활동을 줄이고, 혹서라도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의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